부채에 담긴 삶과 멋

◇우리의 전통부채는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을 담아내며 그 멋과 여유를 더한다. 이호신 作 '마니산 정수사 2' (부채그림)

일상생활 · 의례 · 장식 · 서화소재로 활용

낮잠 든 손자 더위 쫓아주던 사랑 담긴 부채
얼굴가리개 · 신분과시용 · 농사도구 등 다양

어린 시절 할머니 무릎을 베개 삼아 낮잠을 청할 때면 할머니는 커다란 부채로 손자의 더위를 쫓아내어 주셨다. 시원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할머니의 손자에 대한 사랑이 함께 전해져 더욱 더 시원하게 느껴졌던 그 부채 바람.

선풍기 에어컨에 밀려 부채질 하는 할머니와 손자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쉽지는 않지만, 멋과 여유가 담긴 부채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함께 해 왔다.

부채는 손으로 부쳐서 바람을 일으킨다는 순수 우리말이다. 한자로는 선(扇)이라고 한다. 종류별로 살펴보면 둥근 부채를 단선(원선)이라하는데 둥글다는 뜻으로 방구 부채라 하였다. 새의 깃털로 만든 부채는 우선, 접었다 폈다 할 수 있어서 가지고 다니기 간편한 것은 접선, 더위를 식히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 이외의 특별한 용도로 모양이나 재료를 다르게 하여 만든 부채를 별선이라 불렀다. 우리나라 부채는 가는 대살에 종이 또는 헝겊을 발라 만들었는데, 전북 전주, 전남 남평(나주) 등지에서 생산된 부채를 최고로 친다.

부채는 바람을 일으키는 도구로서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의례용 장식용으로도 쓰이는 등 여러 가지 역할을 해왔다. 전통혼례 때 신랑 신부의 얼굴가리개 용으로 쓰는 쌍학혼선 모란혼선 등이 의례용으로 쓰인 가장 대표적인 예다. 안에서는 밖이 보이나 밖에서는 안이 보이지 않아 얼굴가리개로 쓰인 차면선과 햇빛을 가리기 위해 사용한 큰 부채인 대륜선 등도 있었다. 화가나 문인들은 부채에 그림이나 시 구절을 써 넣어 집안에 보관하거나 장식하기도 하였다.

신분 과시용 부채도 있었는데, 조선시대 벼슬한 사람만이 달 수 있는 선추를 늘어뜨린 흑칠접선이 바로 그것이다. 노동용 부채인 드림부채는 곡식의 티끌을 날려 보낼 때에 사용했으며, 지붕 없는 가마에 그늘을 만들어 주는 용도로 쓰인 대과초선이라는 것도 있었다.

조선시대에는 단오날 공조(工曹)에서 부채를 만들어 임금에게 진상했는데 이를 단오부채라 불렀으며, 각 지방의 관리들도 특산품으로 부채를 진상하고, 친지들에게 선사하는 풍속도 있었다.

스님의 모습을 그려 넣고 흰색으로 채색한 부채는 삼불무선이라 했으며, 산수화를 그려 넣은 산수화접선, 설경을 그려 넣은 설경합죽선 등과 선녀머리모양을 본떠 만든 선녀선, 학 날개를 펼친 모양의 학선, 해와 달 꽃과 나비를 그려 넣어 무당이 굿을 할 때 사용하는 일월화접선 등 다양한 부채들이 전해 온다.

문화담당= 이은지 기자 elee@buddhapia.com

문화 소식

만해축전 8월 2~5일 설악산 백담사서 열려

만해 한용운 스님을 기리며 만해사상과 문학의 현대적 계승과 발전을 위해 열리는 2002 만해축전이 8월 2일~5일 강원도 설악산 백담사에서 펼쳐진다.

올해 만해축전은 대통령상이 신설된 '전국고교생 백일장'을 비롯해 회를 거듭할수록 인기를 끄는 '시인학교', 한 여름 밤의 시 낭송회 '야단법석' 등이 잇달아 열린다. 또 '현대과학문명과 문학' '불교문학' '시조문학' '만해학' 등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과 제4회 만해상 수상자였던 시인 오세영교수(서울대 국문과)의 시비 제막식도 갖는다.

특히 3일에는 만해사상실천선양회(총재 정대 스님)가 제정한 제6회 만해상(심사위원장 이수성) 시상식이 열린다. 만해상 평화부문에 강원룡 목사(평화포럼 이사장), 학술부문에 강만길교수(역사학자 상지대 총장), 시문학 부문 신경림 시인(동국대 석좌교수), 예술부문에 박찬수씨(무형문화재 제108호 목조각장) 등이 수상한다.

이밖에도 이애주 교수의 살풀이 공연과 축전 전야제 등 다양한 문화행사와 불교체험 행사가 마련된다.

국제환경미술전 열려 8월 26일까지 한가람미술관

공존과 상생을 예술적 테마로 환경파괴에 대한 반성적 시각과 생태보존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국제환경미술전이 열린다.

27일부터 8월 26일까지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과 옥외공간에서 열리는 '무당개구리의 울음' 전이 바로 그것. 이번 전시는 국내외 작가 31명이 참가해 '도시와 사회환경' '자연환경' '순환하는 자연' 등을 주제로 회화, 판화, 사진, 조각, 설치, 영상 등 100여점의 작품을 통해 환경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되새기는 자리가 될것이다. (02)580-1515.

스님 · 목사 · 문인 '생명사랑' 한목소리

산사음악회 '풍경소리 I'

무등산을 사랑하는 이들 증심사서 소리로 '화해' 모색

스님과 목사, 문인들이 생명사랑을 한 마음 한 목소리로 노래하는 산사 음악회 '풍경소리 1'이 24일 오후 8시 증심사 주차장에서 펼쳐진다.

'무등산을 사랑하는 이들'(대표 일월 증심사·주지 스님 임의진 강진 남녘교회 목사)이 주축이 되어 준비한 이번 음악회는 종교 간의 화해와 생명사랑의 가치를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음악회에는 강원도 산중에 거주하며 '꽃묘' '시오리길' 등 생태적 음악 만들기에 심혈을 기울여 온 김두수 씨가 초대가수로 출연하며, 참교육학부모회 소속 아름나라 어린이합창단이 자연과 생명 나눔, 사랑과 평화를 담은 노래를 부른다.

특히 이번 음악회는 음악과 더불어 문학과의 만남도 준비할 예정인데, 장흥에 머물고 있는 소설가 한승원 씨가 문학과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번 음악회의 사회는 문화공간 '참꽃피는 마을' 공동대표와 전국녹색연합 편집위원인 임의진씨가 맡았다.

이색전시회 The Dog展 '犬性' 인간 위선 풍자

'개(犬)도 불성이 있는가?'

조주스님은 제자의 물음에 '무(無)'라는 한마디로 답했다. 불성이 있다는 것인가, 없다는 것인가.

오랜 세월 선가의 화두로 내려온 이 이야기를 들지 않더라도 개는 우리와 너무나 가까운 동물이다.

이러한 '개'를 재미난 상상력을 발휘하며 감상할 수 있는 이색 전시회 'The Dog 展'이 열린다.

노순석 작 '견성(犬性)'(사진)은 겉으로는 부처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흘레붙은 개가 자리 잡고 있는 인간의 위선을 풍자한 작품이며, 복날 개를 잡아먹고 포한감에 젖은 사람들을 개가 묘한 표정으로 바라보는 최석운 작 '복날' 등 다양한 작품들이 선보인다.

현대미술에서 표현되는 개의 여러 가지 의미를 독창적으로 형상화 한 이번 전시는 개가 우리에게 친숙한 존재일 뿐 만 아니라 인간의 정체성을 투영시키는 매체로, 세태를 꼬집어 내는 존재로써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02)736-4371

심진스님 국악가요 3집 '일면불 월면불' 등 10곡 수록

심진 스님이 국악가요 '바람 부는 날에는 너에게로 가고 싶다'를 내 놨다.

1991년 1집 '그대를 위한 시', 94년 2집 '옥아의 꽃신' 이후 8년 만이다.

이번 3집 앨범에는 '일면불 월면불' '인생별곡' '청산에 올라' '법' '님의 침묵' 등 한국적 정서에 불교의 가르침이 담긴 국악가요 10곡이 수록돼 있다.

경기도 광릉 봉선사에서 정진중인 심진스님은 "준비 기간이 길었던 만큼 음악 선곡에서부터 앨범 디자인에 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면서 "부족하지만 노래로 포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이상 나의 노래가 포교의 한 장르로 자리 잡아가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김홍근이 쓰는

문학 속의 불교

오랜만에 강화도를 찾았다. 그동안 공사 중이던 해안도로의 상당 부분이 완성되어 강화대교에서 바로 바다를 끼고 남쪽으로 내려가는 코스가 환상적이었다. 강화도 답사는 전등사와 보문사 같은 유서 깊은 사찰들로 인해 더욱 풍요로워진다. 나는 그 중에서도 특히 숨어있는 절 정수사(淨水寺)를 좋아한다. 섬의 남쪽 끝에 다소곳이 자리잡은 이 절은 너무나 아담하고 소박하여 정겹기 그지없다.

절로 올라가는 주변 계곡에는 마니산에서 굴러 떨어진 돌들이 많은데, 그 다양한 모습은 오백나한을 연상시킨다. 대웅전 앞마당에 서니, 건너다 보이는 인산의 능선이 부드럽기 그지없고, 그 흐름이 잦아드는 서해바다의 풍광도 일품이다. 신라 때 회정대사가 마니산 참성단에 참배하러 왔다가 이곳의 지형을 보고, 가히 불제자가 삼매정수(三昧精修)에 들만한 곳이라고 여겨 창건했다(639년)고 한다. 과연 포근하면서도 툭 터인 전망이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길지라 할만하다.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대웅보전은 크지는 않지만 그 생김새가 매우 특이하다. 전면에 뾰마루를 덧붙였는데, 옆에서 보면 균형이 맞지 않아 기우뚱 기운 것처럼 보인다. 전망이 이렇게 눈에 선한데 부처님께서도 실내에만 앉아있기 지루하셨을 것이다. 그래서 나와 앉을 뾰마루가 필요했고, 지혜롭게도 비록 대웅보전이지만 앞에 뾰마루가 증축된 것이다. 내가 정수사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은 대웅보전의 꽃창살이다. 4짝의 문으로 구성된 이 사분합문은 각각 다른 모양의 화병 속에 모란과 연꽃 등이 가득 핀 모습이 조각되어 있어 아름답기 그지없다.

정수사와 함허스님

강화 남쪽 끝 위치 … 아담 · 소박
대웅전 꽃창살 화병속 연꽃

"옛날엔 하느님의 콧구멍 뚫고
오늘은 산승과 허공을 치네"

남의 집을 방문하면 먼저 그 집의 주인에게 인사하는 것이 예의다. 대웅보전의 부처님께 인사드린 후엔, 이곳을 중창시킨 조선시대의 함허기화 스님(1376-1433)을 찾아간다. 스님의 부도는 요사채 뒤로 난 산길을 따라 올라가면 있다. 나는 풍수지리는 잘 모르지만, 이 부도 앞에 앉으면 정말 명당이라는 느낌이 절로 든다. 마니산에서 뻗어 내린 산줄기가 몽긋한 봉우리를 만들고 아래로 꺼지는데, 양지 바른 그 봉우리 위에 스님의 부도가 있는 것이다. 조선 초 유학자들의 억불정책에 맞서 불법을 지키는데 심혈을 기울였던 스님은 희양산 봉암사를 중수하고 그곳에서 입적하였다. 스님의 사리는 다섯 군데 부도로 나뉘어 모셔졌으니, 그 중의 한 곳이 이곳이다. 생전에 〈금강경오가해〉를 즐겨 강의한 스님은 그 정신을 이어받아 뛰어난 시인이기도 했다. 부도비 앞에 서서 망망한 서해 갯벌을 바라보며 손에 든 부채로 이마에 맺힌 땀을 식히다보니, 스님의 시 〈부채〉가 생각난다.

옛날에는 하느님의 콧구멍을 뚫고
오늘은 산승과 더불어 허공을 치네
오고 갈 때마다 터지는 허공의 할!
'휘휘' 소리에 가득 차는 바람

■문학평론가

玉 조각작품으로
한불 한불 정성껏 조각하여 모십니다

雪山白玉佛

우리부처님
코리아붓다
KOREA BUDDHA
http:www.korea buddha.co.kr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8동 1663-6 새한빌딩 401호
TEL : 서울 (02) 864-8834 부산 (051) 637-2333
FAX : 서울 (02) 839-2185 부산 (051) 637-6888

고불총림방장 서옹 큰 스님 / 추천서